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2학기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1)

대학		학 과 (학부·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험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십시오.
-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 번호를 줄 맨 앞에 쓰고, 바로 이어 답을 쓰십시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쓰십시오. (숫자나 수식, 표 등은 제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 답안 작성 시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2학기 논술 문제지(인문계열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사회의 연간 총수입(總收入)은 그 사회의 연간 노동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자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한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개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보다 자국에서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한다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 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판단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려는 정치가는 스스로 불필요한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가는, 어떤 한 개인에게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으며 어떤 위원회나 국회의원에게도 안심하고 위임할 수 없는 권력 - 또한 자신만이 이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둔하고 황당한 사람의 수중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그런 권력 - 을 멋대로 휘두르려는 것이다. 국내의 특정한 수공업·제조업 제품에 대해 국내 시장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각 개인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경우 쓸모없거나 유해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대체로 평등하고, 어떤 특정 사회의 법률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고 홉스는 생각한다. 자기 보존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며, 우리의 자연적 욕구 그 자체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덕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인류의 자연 상태’는 각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며, 각자가 안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홉스는 두 가지의 생생한 유비추리(類比推理)를 하고 있다. 먼저 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언급한다. 이 말은 반드시 실제의 투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야기될 항구적인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홉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공업과 농업, 어업은 물론 과학적 지식조차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계속되는 공포와 잔인한 죽음의 위험만이 있을 따름이다. 자연 상태에서의 불행의 목록은,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악하고, 야만스러우며, 짧다”는 저 유명한 구절로 끝난다. (중략)

홉스의 둘째 비유는 인생이 하나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 경쟁에서 “오로지 최고가 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갖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쟁은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요체이다. 각자는 서로,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잔악함이 생길 수 있다. (중략)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탈취해 갈 것이라는 공포에서 유래한다. 홉스는 자연권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것은 정의와 관련된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만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타인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연권은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무나 책무와는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권리의 개념이 처음으로 철학에 등장한다. 각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대한 배려만을 요구하는 한, 이러한 권리 개념은 사회적 불안을 낳는 원인이 될 뿐이다. (중략)

이러한 상황을 홉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강제력이 없다면 계약은 한낱 말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을 안심시킬 수 있는 힘을 전혀 갖지 못한다.” 사람들은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 경향이 변한다거나 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의 준수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이성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지상 명령이 되며,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힘을 어떤 집단이나 한 사람에게 양도하게 된다.

(다) 청렴 개결(清廉 介潔)을 생명으로 삼는 선비로서 재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찌 감히 이해를 따지고 가릴 것이냐. 오직 예의(禮義), 염치(廉恥)가 있을 뿐이다. 인(仁)과 의(義) 속에 살다가 인과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멋뜻하다.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배울 것이요, 악비(岳飛)와 문천상(文天祥)을 본받을 것이다. 이리하여 마음에 음사(淫邪)를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재물을 말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취대(取貸)하여 올 주변도 못 되지마는, 애초에 그럴 생각을 염두에 두는 일이 없다.

실상 그들은 가명인(假名人)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만든 것은 어쭙지않은 관료들의 죄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 기개, 사육신도 이 쟁님의 부류요, 삼학사(三學士)도 ‘딸깍발이’의 전형인 것이다. (중략) 국사(國史)에 통탄할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직언으로써 지존에게 직소(直訴)한 것도 이 쟁님의 족속인 유럽에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임란 당년에 국가의 운명이 단석(旦夕)에 박도(迫到)되었을 때,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두목들도 다 이 딸깍발이 기백의 구현인 것은 의심 없다.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

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답히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염결(廉潔)에 밝은 것이 아니라, 극단의 이기주의에 밝다. 이것은 실상은 현명한 것이 아니요, 우매(愚昧)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 꾀에 제가 빠져서 속아 넘어갈 현명이라고나 할까. 우리 현대인도 딸각발이의 정신을 좀 배우자. 첫째 그 의기를 배울 것이요, 둘째 그 강직(剛直)을 배우자. 그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오히려 분간을 하여 가며 배워야 할 것이다.

(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하여 존경이라는 관념이 마음 속에 형성되자, 누구나 자기가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외범절의 의무가 미개인들 사이에도 생기게 되었으며 고의적인 범행은 모두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보다는 인격을 모욕당했다는 점 때문에 더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받은 모욕만큼 상대에게 벌을 가했으므로 복수는 더욱 끔찍해지고 인간은 살생까지 저지를 정도로 잔인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미개민족이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관념들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들 민족이 이미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인간은 본래 사악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원시 상태의 사람들만큼 온순한 자들은 없었으니, 그들은 자연에 의해 짐승들의 어리석음과 문명인의 꺼림칙한 지식의 중간에 놓여 본능과 이성에 따라 자기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몸을 수호하는데 그쳤고, 타고난 연민으로 인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었으며,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자(賢者) 로크의 격언과 같이 “소유가 없는 곳에 바르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순간부터, 그리고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양식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평등은 사라지고 소유가 도입되고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광대한 숲은 인간의 땀으로 적셔야 할 들판으로 변했으며, 머지않아 그 들판에서는 수확과 더불어 예속과 비참이 짝트고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정도가 다소 경미할지 모르지만 늘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뉴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역사학자 폴 콘킨은 뉴딜 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엑클즈와 케인즈의 가장 큰 무기, 즉, 개인 기업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방법은 미국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37년 루즈벨트도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중략) 뉴딜이 복지정책으로 옮겨감으로써 경제적 결정권을 민간 기업가들이 차지할 위험성은 대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사적 이익집단들은 흔들리게 되었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해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안전해졌다. (중략)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히 국가의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뉴딜이 후세에 남긴 지속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 대공황과 이를 이은 뉴

딜 정책이 남긴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는 그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황이라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구조적인 공황은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에 의한 개입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셋째, 시장경제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바) 복잡계 이론에서는 매우 단순한 결정론적 체제 내에서조차 ‘마구잡이식(random)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가 어떠한 체제에 관해 아무리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작동 과정에서 임의로 발생하는 많은 움직임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임의적 요소들이 완전하게 지배하는 체제를 우리는 무질서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무질서 체제는 인간의 예측 능력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 무질서 현상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패턴을 보이면서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비정형적인 체제를 ‘카오스 체제’라고 부른다. 카오스 체제는 언뜻 보기에 무질서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작동 원리는 철저하게 결정론적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뉴턴식 세계관에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카오스 체제 내에서는 초기 상태의 매우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매우 커다란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복잡한 작동 과정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후의 변화를 관측하던 도중,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변수 값의 차이가 세계 기상 변화에 큰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카오스 체제는 항상 초기 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전체 체제의 작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 1] 개인의 이익과 사회(또는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점을 논술하되,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30점, 500~550자 사이 (답안지 22줄 이내)]

[문제 2] 제시문 (바)의 카오스 체제가 사회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마)를 비판하시오. [40점, 500~550자 사이 (답안지 22줄 이내)]

[문제 3] 다음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정부 규제 정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불법 복제에 따른 추정 피해액을 정리한 가상 자료이다.

<표 1> 정부 규제 정도·불법 복제율·추정 피해액 가상 자료

국가	정부 규제 정도	불법 복제율(단위: %)				추정 피해액(단위: 백만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A	강함	70	60	50	40	163	135	110	?
B	중간	70	65	60	55	140	143	141	136
C	약함	70	68	66	64	70	82	92	99

* 추정 피해액 = 정품 소프트웨어 매출액 × (불법 복제율 / 정품 사용률)로 가정한다.

* 정품 사용률 + 불법 복제율 = 100(%)

[3-1] 매출액이 변화하는 양상을 근거로, A국의 2006년 정품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답안지 10줄 이내]

[3-2] A국의 2006년 불법 복제율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한 후, <표 1>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15점, 답안지 10줄 이내]